

총칼에 맞선 ‘펜’...광주서 문학의 본질을 묻다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⑥ 오월 문학축전·한국 작가회의

21·22일 민주광장 5·18묘역 일대
전국 문학인들 모여

5·18문학상 시상·시극 공연·토론회

한국작가 광주선언문 낭독

오월정신 고양 걸개시화전도 열어



오는 21일·22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서 개최되는 광주오월문학축전 및 한국작가대회는 전국의 문학인들이 문학을 매개로 오월 그날의 뜻을 기린다. 사진은 2015년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시화결개전 모습.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제공>

문학은 시대를 기록하는 최선봉의 예술이다. 현장성, 즉흥성, 시대성을 매개로 당대의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80년 오월에도 문학(인)은 신군부 총칼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펜’을 들었다.

5·18 36주년을 맞아 전국의 문학인들이 광주에 모여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

한국작가회의의와 각 지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관하는 ‘광주오월문학축전 및 한국작가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과 5·18묘역 일대에서 열린다. ‘기억과 초혼, 문학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시극, 주먹밥 체험행사, 걸개시화전, 토론회, 5·18 사적지 답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1일(7시~9시) 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서 열리

는 본행사는 ‘5·18문학상’ 시상식과 ‘저항’을 주제로 한 시극 공연이 예정돼 있다. 시극에는 한국작가회의의 각 지회별 역사를 담은 작품으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공연에서는 각 지회 회원이 참여한 시낭송이 펼쳐지고 한국작가 광주선언문이 낭독된다.

이에 앞서 저자 사인회도 계획돼 있다. 21일(오후 5시~6시) 금남로 광장 및 민주광장 일대에서 각 지회 회원저서(저자 제공·부스 자비 부담) 사인회가 청소년축제 레드페스타와 연계하여 열린다. 동 시간대에는 주먹밥 체험행사도 금남로 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오월정신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토론회도 마련된다. 21일(오후 3시~5시)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옛 카톨릭센터)에서 ‘오월문학의 현대적 흐름과 전망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월정신의 문학적 맥락을 점검한다.

이날 발제자는 문학평론가 이성혁(‘오월문학에 있어 시문학의 흐름과 전망’), 문학평론가인 조선대 김형중 교수(‘오월문학에 있어 소설의 성과와 전망’),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김진경 씨(‘오월 동화의 가능성 모색’)가 나선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선 이승철 시인, 김동운 제주대 교수, 박상률 시인, 심영의 소설가가 5·18문학상과 5월문학총서를 매개로 오월 정신의 문학적 본질을 묻는다.

22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묘역 일원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흔을 가능할 수 있는 사적지 답사가 이어진다.

이밖에 망월동 구 묘역 일대에서는 한국작가회의의 전국 각 지회 회원들의 걸개시화전(1일~30일)이 열린다. 시화전을 통해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감상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을 매개로 오월 정신을 고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서거 100년...토스티를 기리며

벨칸토 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20일 금호아트홀

‘작곡가 토스티를 기리며.’

벨칸토 성악아카데미(회장 구제창·사진) 제29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는 특히 서거 100년을 맞는 작곡가 토스티의 가곡 작품으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베이스 최철, 메조 소프라노 임선아, 테너 이진희, 소프라노 김민희·김혜미 등이 ‘죽고 싶다’, ‘비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최후의 노래’ 등 토스티의 대표곡을 부른다. 피아노 반주는 장지민·이현주·이영아씨다.

‘악기와 함께하는 노래’에서는 바리톤 김용원씨가 첼로(정아름)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멘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를 들려주며 메조 소프라노 김영실씨는 서탄 재씨의 기타 연주와 함께 로르카의 ‘고대 스페인의 노래’를 선사한다. 또 구제창씨가 아코디언(차일봉) 반주에 맞춰 영화 ‘여인의 향기’에 삽입됐던 ‘머리카락 하나 차이’를 부르며 최철씨는 정애련 곡 ‘장터 아리랑’을 장고와 함께 들려준다. 문의 010-3642-16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azz Concert

‘SOOF Trio’ 1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

광주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세 번째 무대 ‘SOOF Trio의 Jazz Concert’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SOOF’는 ‘우리의 우정을 결코’라는 뜻을 가진 ‘Swear On Our Friendship’의 줄임말. 지난 2015년 창단된 이 그룹은 재즈 사운드를 팝·힙합·라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결합하며 창작 음악활동을 하는 밴드다. 이번 공연에는 리더이자 피아니스트 정관영, 베이스리스트 한수정, 드러머 이다훈 씨와 함께 보컬 박다빈, 기타 김한민, 색소폰 정예달 씨가 객원 멤버로 참여한다.

레퍼토리는 존 콜트레인 ‘Moment Notice’, 레이첼 야마가타 ‘Be Be Your Love’, 한국 재즈밴드 프렐류드 ‘Cha Cha Bonita’, ‘Magic Spell’, 윤상 ‘넌 쉽게 말했지만’, 자작곡 ‘설렘’ 등이다. 선착순 100명 무료 공연. 문의 062-67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박장대소’ 21일부터 시작

국립광주박물관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박장대소(博場大笑)’가 오는 21일 찾아온다.

박장대소는 공예작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해 집에서 안쓰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음식 등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0월까지 매일 셋째주 토요일(오후 1~5시)마다 열린다.

오는 21일 열리는 ‘박장대소’는 풍물 공연을 비롯해 판매자들이 각자 상

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감쪽 Sale 행사도 열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추첨 이벤트도 열려 당첨자들에게 판매자들이 기부한 문화상품들이 제공된다.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월 행사는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62-570-7053. /김홍희기자 kimhy@

광주시향, 광주시민의 날 기념 시민합창단과 베토벤 ‘합창’ 공연

2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오는 21일은 제51회 광주시민의 날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시민합창단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기도 하다.

이날 음악회는 유명 성악가의 음성으로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시민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이 함께 공연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제 4악장 ‘환희의 송가’다.

교향악단측은 지난 4월 오디션을 실시, 시민합창단을 선발했고 참가자들은 광주시립합창단 이준 부지휘자의 지도를 받으며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무대에는 조형심, 전명자, 김선영, 임다은, 이현민씨



등과 하모닉스합창단 단원들이 함께 한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말러의 가곡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레하르 오페레타 ‘웃음의 나라’ 중 ‘그대만이 유일한 내 사랑’, 푸치

니 오페라 ‘자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중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 등을 만날 수 있다.

김영언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으며 동양인 최초로 수만, 휴고 볼프 국제가곡콩쿠르에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바리톤 정록

기(한양대 교수)씨를 비롯해 소프라노 박현주, 메조 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충희 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찰송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